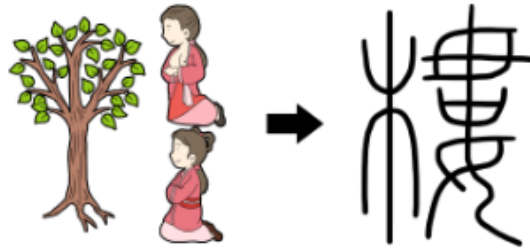


3(2)
-
121

회의문자 ①



樓

樓자는 '층집'이나 '망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樓자는 木(나무 목)자와 婁(꿀 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婁자는 두 여인을 겹쳐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겹쳐진 모양만이 응용되었다. 樓자는 층으로 이루어진 '층집'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니 婁자는 발음 외에도 복층 건물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락 루

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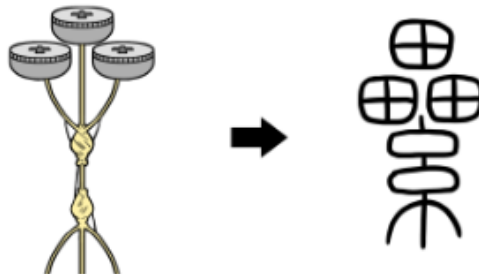
소전

樓

해서

3(2)
-
122

회의문자 ①



累

累자는 '묶다'나 '여러', '자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累자는 田(밭 전)자와 系(가는 실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累자의 소전을 보면 𪛗(밭 갈피 퇴)자와 系자가 결합한 𪛗(여러 루)자가 그려져 있었다. 𪛗자는 베틀에 매달아 놓은 추를 그린 것이다. 베를 짜는 베틀에는 여러 개의 조작 도구가 있는데, 𪛗자는 그중에서도 실에 매달려 있던 추를 표현한 것이다. 천을 짜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 𪛗자는 여러 번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나 '자주', '묶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累자는 후에 간략화되면서 지금은 累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여러/자주 루:

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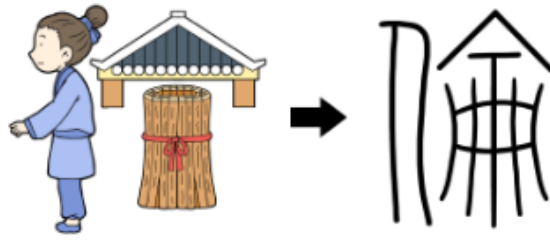
소전

累

해서

3(2)
-
123

회의문자 ①



倫

인륜 룬

倫자는 '인륜'이나 '윤리', '도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倫자는 人(사람 인)자와 倫(등글 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倫자는 등글게 말아놓은 죽간(竹簡)을 그린 것으로 '등글다'라는 뜻이 있다. 옛사람들은 세상은 돌고 도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인륜을 저버리면 언젠가는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고 반대로 내가 '도리'를 지킨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일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倫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등글다'라는 뜻을 가진 倫자를 응용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도리와 윤리를 뜻하고 있다.

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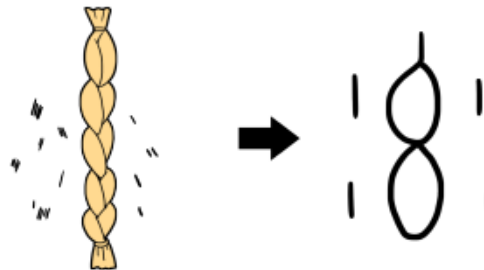
소전

倫

해서

3(2)
-
124

상형문자 ①



率

비율 룬
| 거느릴
솔

率자는 '거느리다'나 '비율',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率자는 玄(검을 현)자와 十(열 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率자의 갑골문을 보면 실타래를 그린 糸(가는 실 사)자 주위로 점이 𠂔 찍혀있었다. 이것은 밧줄을 잡아당길 때 부스러기가 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率자의 본래 의미는 '동아줄'이었다.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에서 '이끌다'라는 뜻이 연상됐던 것일까? 지금의 率자는 '거느리다'나 '비율'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率자가 이렇게 '거느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糸자를 더한 縴(동아줄 룬)자가 '밧줄'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率자를 '비율'이라고 할 때는 '율'이라 발음한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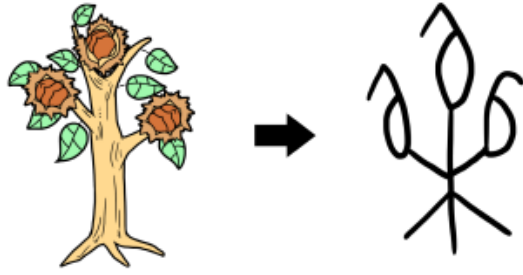
소전

率

해서

3(2)
-
125

상형문자 ①



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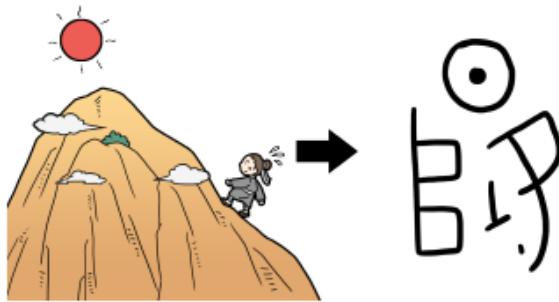
밤 룰

栗자는 '밤나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栗자는 木(나무 목)자와 𣎵(덥을 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𣎵자는 '덥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갑골문에 나온 栗자를 보면 들기가 있는 열매가 𣎵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열매를 뜻하는 果(열매 과)자와 𣎵 매우 비슷하지만 栗자는 밤송이의 까칠한 부분을 강조해 그려졌다. 이것이 해서에서는 𣎵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栗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26

회의문자 ①



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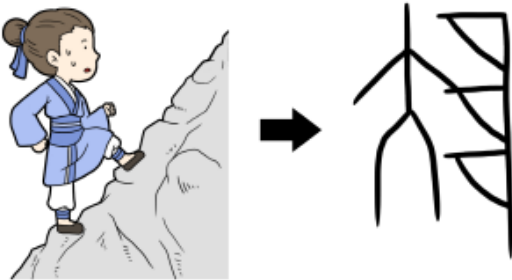
높을 룡

隆자는 '높다'나 '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隆자는 阜(부 : 언덕 부)자와 隆(하늘에 예 지 낼 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隆자를 보면 阜자와 日(날 일)자, 攴(뒤져서 올 치)자, 土(흙 토)자가 隆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해가 뜬 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날씨가 좋아야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隆자는 '높다'나 '산 정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3(2)
-
127

상형문자 ①



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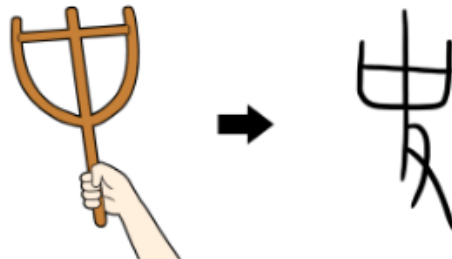
언덕 릉

陵자는 '언덕'이나 '무덤',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陵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夨(언덕 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언덕 위로 오르는 사람만이 夨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陵자의 본래 의미는 '오르다'였다. 하지만 후에 陵자는 높은 언덕을 뜻하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발을 그린 夨(천천히 걸을 쇠)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28

지사문자 ①



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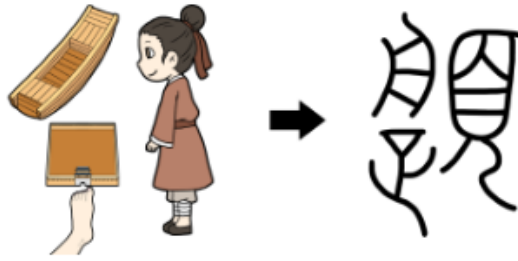
벼슬아치
/관리
리:

吏자는 '벼슬아치'나 '관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吏자는 史(역사 사)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갑골문에서는 吏자나 史(역사 사)자, 事(일 사)자, 使(부릴 사)자 모두 같은 글자였다. 이 글자들은 모두 손에 주술 도구를 들고 있는 단 하나의 글자에서 시작됐다. 후에 의미가 분화되면서 다양한 글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吏자는 史자에 획을 하나 더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뜻하게 되었다. 글자가 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使(부릴 사)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29

회의문자 ①



履

밟을 리:

履자는 '밟다'나 '행하다', '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履자는 尸(주검 시)자와 復(돌아올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고문(古文)에 나온 履자를 보면 舟(배 주)자와 正(바를 정)자, 頁(머리 혈)자가 겹쳐진 𣥂 모습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되었지만 履자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밟다'나 '행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𣥂

금문

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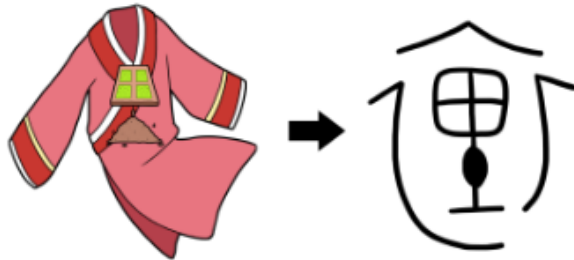
소전

履

해서

3(2)
-
130

회의문자 ①



裏

속 리:

裏자는 '속'이나 '내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裏자는 衣(옷 의)자와 里(마을 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里자는 밭과 흙을 함께 그린 것으로 '마을'이나 '안쪽'이라는 뜻이 있다. 裏자는 이렇게 '안쪽'이라는 뜻을 가진 里자에 衣자를 결합한 것으로 '옷의 안쪽'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지금의 裏자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안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참고로 裏자는 간혹 裡(속 리)자로 쓸 때가 있는데, 쓰는 방식만 다를 뿐 뜻은 같다.

𣥂

금문

裏

소전

裏

해서